제 1 교시

수능 국어 희파

공통

[음 운]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대체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생기는 일이다. 예컨대 한국어 '결혼하다'는 자동사여서, "나와 결혼해 줘."라고 얘기해야지 "나를 결혼해 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은 "Marry me."라는 두 낱말 사이에 'with'를 끼워 넣고 싶어 한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게 나타난다. 많은 외국어들이 조음점이 같은 자음들을 성대 진동 여부로 변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h/ 소리를 동반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자음들의 차이를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쉬운 /ㄱ, ㅋ, ㄲ/, /ㄷ, ㅌ, ㄸ/, /ㅂ, ㅍ, ㅃ/, /ㅅ, ㅆ/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된다.

한국어의 유성음에는 모음과 유성 자음인 /ㄴ, ㄹ, ㅁ, ㅇ/이 있다. 그런데 ㉠<u>무성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동화를 통해 유성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u> 이를테면 '고고학'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은 음소 수준에서 둘 다 /ㄱ/으로 시작되지만, 음성 수준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각각 실현된다. 그래서 '고고학'은 [ko:gohak]으로 발음된다. 한국어 화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고고학'을 [고코학], [고꼬학], [코꼬학] 비슷하게 발음하기 쉽다.

한국어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음운 규칙들이 많다. 예컨대 '독립문'이나 '불난리'를 글자 그대로 [독립문], [불난리]로 읽지 않고 왜 [동님문], [불랄리]로 읽어야 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복잡한 규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의 /ㅡ/나 /ㅢ/ 같은 독특한 모음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히는 일은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일본어와 같이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어 문장 성분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꽃이 핀다."와 "꽃은 핀다.", "아이가 운다."와 "아이는 운다."의 의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아예 조사를 생략하고 "꽃 핀다.", "아이 운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이 겪어야 할 끝도 없는 고달픔의 시작일 뿐이다. 가까스로 통사 구조를 익히고 나면, 한국인들도 더러 헷갈려 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국에서 살거나 아예 한국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모국어 집단별로 사용하는 탈규범적 한국어가 어느 수준의 실용성을 획득한다면, 한국에도 일종의 혼성어인 피진 비슷한 언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권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과 같은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3점]

[13학년도 사관 1차 14번]

① 아기, 굴비 ② 누나, 담당 ③ 마디, 눈물
④ 부부, 잉어 ⑤ 바지, 상념

2.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14학년도 사관 1차 A형 14번]

< 보 기 >

우리말 음운 변동 중, 교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동 유형	설명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올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	'ㄹ'에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 ㅌ'이 'ㅣ'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와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① 논일
② 같이
③ 바깥
④ 믿는다
⑤ 물놀이

1) [문장] 22번과 중복 지문

3.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15학년도 사관 1차 A형 11번]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ㆍ밭이랑[반니랑] ㆍ늦여름[는녀름] ㆍ숱하다[수타다]
ㆍ국물[궁물] ㆍ좋으면[조:으면]

① '밭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ㅈ'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숱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좋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A형 11번]

< 보 기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③ '밟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④ '닫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5. <보기>는 모음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학년도 사관 1차 14번]

< 보 기 >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면 모음들이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선행 모음 'ㅡ'가 다른 단모음 앞에서 탈락하거나 선후행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또한, 두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하고, 두 단모음이 새로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① '파- + -아서 → [파서]'는 동일한 단모음 'ㅏ'와 'ㅏ' 중 하나가 탈락하였다.
② '비- + -어서 → [비여서]'는 단모음 'ㅣ'와 'ㅓ'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③ '쓰- + -이-+-어 → [쓰여]'는 'ㅡ'가 그대로 유지되고, 'ㅓ'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④ '바꾸- + -어라 → [바꿔라]'는 단모음 'ㅜ'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다음 'ㅝ'와 결합하였다.
⑤ '보- + -이-+-어 → [뵈여]'는 'ㅗ'와 'ㅣ'가 단모음으로 축약되고, 'ㅞ' 앞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학년도 사관 1차 11번]

< 보기 1 >

음운 현상은 바뀌게 되는 음운, 바뀌어 나온 음운,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음운 현상은 음운 수의 변화,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음운 현상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될 수도 있다.

< 보기 2 >

'닭+만→[당만]', '잎+만→[임만]', '웃+는→[운:는]', '닦+는→[당는]'은 비음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비음화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된다.

①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ㅁ, ㄴ 앞'이다.
② 비음화에 의해 바뀌게 되는 음운은 'ㅂ, ㄷ, ㄱ'이다.
③ 비음화는 조음 방법은 달라지지만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 음운 현상이다.
④ '닭+만→[당만]'의 경우 비음화에 의해 음운의 수가 줄어든 예로 볼 수 있다.
⑤ '국+물→[궁물]'의 경우 안울림소리가 'ㅇ'으로 바뀌므로 비음화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단 어]

7.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3학년도 사관 1차 4번]

< 보 기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활용을 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기본형]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묻다	묻고, 물어(← 묻 + 어) ……
• 어미가 바뀌는 경우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누르 + 어)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하얗다	하얗고, 하얘(← 하얗 + 아) ……

< 보 기 >

ㄱ. 걸어서 도착한 무진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ㄷ. 신록이 짙어지니 멀리 있는 산이 푸르러 보이는구나.
ㄹ. 한 십 년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ㅁ.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서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한다.

① ㄱ의 '걸어서'는 기본형이 '걷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② ㄴ의 '지어서'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③ ㄷ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④ ㄹ의 '흘러'는 기본형이 '흐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⑤ ㅁ의 '빨개서'는 기본형이 '빨갛다'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이군.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14학년도 사관 1차 A형 10번]

< 보 기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① 참 : 거짓
② 크다 : 작다
③ 왼쪽 : 오른쪽
④ 쉽다 : 어렵다
⑤ 오르다 : 내리다

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고른 것은?

[14학년도 사관 1차 A형 12번]

< 보기 1 >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라 부르고,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

< 보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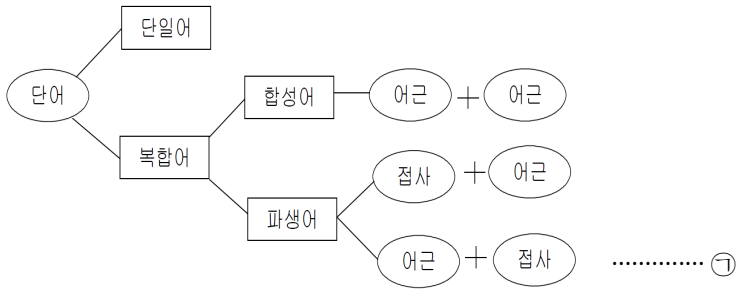
㉠굶주리다 ㉡기와집 ㉢덮밥 ㉣들어가다 ㉤작은집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4학년도 사관 1차 B형 13번]

< 보 기 >



① 군소리
② 나무꾼
③ 멋쟁이
④ 바느질
⑤ 지우개

11.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A형 14번]

이르다[1]〔이르러, 이르니〕「동사」
㉠【…에】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에】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2]〔일러, 이르니〕「동사」
㉠【…에게 …을】【…에게 고】무엇이라고 말하다.
㉡【…을】【…에게 …을】【…에게 고】【…에게 도록】 타이르다.
㉢【…에게 …을】【…에게 고】미리 알려 주다.
㉣【…에게 …을】【…에게 고】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에게 고】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3]〔일러, 이르니〕「형용사」
【…보다】【기에】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① '이르다[1]', '이르다[2]', '이르다[3]'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② '이르다[1]'과 '이르다[2]'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③ '이르다[1]'과 '이르다[2]'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④ '이르다[1]' ㉠과 '이르다[2]'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⑤ '이르다[3]'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2.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A형 15번]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⑤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게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13. <보기 1>의 ㉠~㉣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A형 12번]

< 보 기 >

• 나는 눈을 감은 ㉠<u>채</u>로 고향을 생각했다.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u>채</u>를 선물로 보냈다.
• 어머니께서는 ㉢<u>채</u>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그녀는 항상 당근은 ㉣<u>채</u>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 보 기 >

a. ㉠, ㉡, ㉣은 체언이다.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A형 15번]

< 보 기 >

부르다1 [불러, 부르니]「동사」
[1]【…을】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르다.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
[2]【…을 …에】【…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을 …으로】【…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1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동사」
[1]【…에게】
㉠ '부르다1[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부르다1[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에게 …으로】【…에게 -고】
'부르다1[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① A에는 '부르다1[1] ㉡'이 들어간다.
② '부르다1'과 '불리다1'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③ '부르다1[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부르다1[1]'의 ㉣, ㉤은 '불리다1'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⑤ '부르다1'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5. <보기>는 접두사의 쓰임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 ㉡에 들어갈 접두사로 적절한 것은?

[17학년도 사관 1차 11번]

< 보 기 >

<탐구 과제>
수집한 단어 분석을 통해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의 쓰임을 탐구한다.

<수집한 단어>
새까맣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시퍼렇다 싯누렇다

<탐구 결과>

결합되는 어간의 첫 음절	초성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 소리	
	중성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접두사			㉠	㉡	

	㉠	㉡		㉠	㉡
①	시-	샛-	②	시-	싯-
③	새-	시-	④	새-	샛-
⑤	샛-	싯-			

16.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7학년도 사관 1차 12번]

< 보 기 >

선생님 : 자, 이번에는 보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의 용례 위에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 글상자는 보조사가 용례의 [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글상자는 왼쪽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보조사가 결합되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ㄱ의 예시를 보고 ㄴ의 빈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크려~~, 는, 도, 만, ~~요~~

ㄱ. 철수[ ] 영화를 본다. ⇨ 보조사 중에는 체언 뒤에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크려~~, 는, 도, 만, ~~요~~

ㄴ. 철수가 멋있어[ ] 보이네. ⇨ [ ]

① 보조사 중에는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② 보조사 중에는 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③ 보조사 중에는 연결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④ 보조사 중에는 종결 어미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⑤ 보조사 중에는 보조 형용사 뒤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언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심리가 주된 동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말 중의 하나가 '줄임말'이다. '줄임말'은 본말보다 음절수가 하나 이상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 형식으로,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ㄱ. 가지다 → 갖다, 견디어 → 견뎌, 아이 → 애
ㄴ. 노동조합 → 노조, 몰래 카메라 → 몰카, 한국은행 → 한은
ㄷ. 서양복 → 양복, 자외광선 → 자외선, 거스름돈 → 거스름
ㄹ. 태권도 + 에어로빅 → 태권로빅, 자동차 + 가계부 → 차계부

ㄱ은 음운론적인 과정을 통해 음절수가 감소된 경우이다.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준말'의 예들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음운론적 차원에서 음절이 줄어든 준말은 음운이 '탈락'되거나 '축약'되면서 형성된다. 전자는 모음 중 한 모음이 생략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마음 → 맘', '디디고 → 딛고'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두 모음이 결합하면서 두 모음과는 다른 제3의 모음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나이 → 사내', '조심스러이 → 조심스레'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ㄴ, ㄷ, ㄹ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음운론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다. ㄴ은 단어와 단어가 연쇄되어 있을 때, 각각의 첫 음절만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두자어(頭字語)'라고 한다. 두자어는 본말이 구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고유 명칭처럼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ㄷ은 복합어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생략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절단어(切斷語)'라고 한다. 절단어는 보통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지지만 간혹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ㄹ은 둘 이상의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혼성어(混成語)'라고 한다.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두 단어가 갖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f에서 '줄임말'의 유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18학년도 사관 1차 12번]

< 보 기 >

a. '슈퍼'는 원래 '슈퍼마켓'에서 온 말이지.
b. '어제저녁'은 '엊저녁'으로 줄여 쓸 수 있어.
c. '고속철도'를 간단하게 '고속철'이라고도 해.
d. '불백'은 '불고기 백반'이라는 말이 준 거야.
e. '라면과 떡볶이'를 합치면 내가 좋아하는 '라볶이'.
f. '선거 관리 위원회'를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하지.

① a, b ② a, c ③ b, e ④ a, c, e ⑤ b, d, f

2) [어문 규범] 46번과 중복 지문

18. <보기>에서 제시한 ㄱ~ㅁ의 '복수 표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8학년도 사관 1차 14번]

< 보 기 >

ㄱ. 너희는 학교로 모여라. / 너희들은 학교로 모여라.
ㄴ. 친구들이 병들을 모았다. / *음료수 세 병들이 깨졌다.
ㄷ. *거기들에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 여기들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ㄹ. *세종대왕들이 한글을 창제했다. / 우리 학교는 세종대왕들을 길러내고 있다.
ㅁ. *일과 이를 더하면 삼들이다. / *지고 이기고는 둘째들 치고 경기에 집중하자.

*는 비문임.

① ㄱ : 복수의 의미를 갖는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② ㄴ : 명사가 단위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③ ㄷ : 가까운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ㄹ :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⑤ ㅁ : 체언 중에서 수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19.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학년도 사관 1차 13번]

< 보 기 >

실리다[1]
「동사」
【…에】
「1」 옮겨지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려지다. '싣다'의 피동사.
예 다음 날 밤 그는 포승을 찬 채 지프차에 실리어 갔다.
「2」 사람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하여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 것에 오르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3」 글, 그림, 사진 따위가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나오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예 신문에 우리 학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4」 기운이 무엇에 품기거나 띠게 되다. '싣다'의 피동사.

실리다[2]
「동사」
【…에 …을】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 '싣다'의 사동사.
예 구급차에 환자를 실려 보내다.

① '실리다[1]' 「1」의 능동사인 '싣다'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② '실리다[1]' 「4」의 용례로 '눈에 겁이 잔뜩 실려 있다.'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리다[2]'에서 제시된 용례를 주동문으로 만들려면 부사어를 주어로 바꿔야 한다.
④ '실리다[1]'과 '실리다[2]'는 서로 동일한 품사이면서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⑤ '실리다[1]'과 '실리다[2]'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

의미 자질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을 말한다. 의미 자질을 표시할 때는 여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또는 [-기준]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예컨대 '소녀', '소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소녀 : [-남성], [-어른], [+인간]
소년 : [+남성], [-어른], [+인간]
할머니 : [-남성], [+어른], [+인간]
할아버지 : [+남성], [+어른], [+인간]

그런데 위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 즉 [+인간]을 표시하고 나면 [+포유류], [+동물] 등의 의미 자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 자질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유류], [+동물] 등을 [+인간]의 잉여자질이라 한다.

단어의 의미 자질은 상위어일수록 그 수가 적다. 예컨대 '사람', '남자', '소년'의 의미 자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사람 : [+인간]
남자 : [+인간], [+남성]
소년 : [+인간], [+남성], [-어른]

한편, 단어의 의미는 변한다. 이는 곧 의미 자질이 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컨대 15~17세기에 나타나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면 '마노라'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여자만을 가리키게 된다. 19세기에는 '마노라' 외에도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 '마노라'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마누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마누라'라는 단어만 남았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부를 때 외에 '중년이 넘은 여자'를 낮춰 부를 때도 사용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학년도 사관 1차 14번]

① '총각'과 '처녀'의 공통된 의미 자질에는 [-결혼]이 있다.
② '과일'의 의미 자질의 수는 '포도'의 의미 자질의 수보다 적다.
③ '바다'와 '강'의 의미 자질 중의 하나는 [+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수탉'이 [+동물]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은 잉여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낮'이 [+밝음]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밤'은 [-밝음]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3) [국어사] 50번과 중복 지문

[문 장]

21.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맞는 것은? [3점]

[12학년도 사관 1차 3번]

① **조리다** : 공포영화는 가슴 조리는 맛으로 본다.
졸이다 : 고등어는 졸인 것이 맛있다.

② **곤욕** : 뜻밖의 손님을 맞아 몹시 곤욕스럽다.
곤혹 : 그의 말투에 심한 곤혹을 당한 기분입니다.

③ **부치다** : 귀농을 하려 해도 부칠 땅이 없다.
붙이다 : 따귀를 붙이고 보니 손이 다 얼얼했다.

④ **돋구다** : 어머니께서 입맛을 돋구는 보약을 지어 보내셨다.
돋우다 : 시력이 나빠질 경우에는 안경의 도수를 돋워야 한다.

⑤ **홀몸** : 임신하여 홀몸이 아닌 누나를 보살피는 매형의 정성이 대단하다.
홑몸 : 지난 해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님은 홑몸이 되셨다.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대체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생기는 일이다. 예컨대 한국어 '결혼하다'는 자동사여서, "나와 결혼해 줘."라고 얘기해야지 "나를 결혼해 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은 "Marry me."라는 두 낱말 사이에 'with'를 끼워 넣고 싶어 한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게 나타난다. 많은 외국어들이 조음점이 같은 자음들을 성대 진동 여부로 변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h/ 소리를 동반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자음들의 차이를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쉬운 /ㄱ, ㅋ, ㄲ/, /ㄷ, ㅌ, ㄸ/, /ㅂ, ㅍ, ㅃ/, /ㅅ, ㅆ/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된다.

한국어의 유성음에는 모음과 유성 자음인 /ㄴ, ㄹ, ㅁ, ㅇ/이 있다. 그런데 무성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동화를 통해 유성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고고학'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은 음소 수준에서 둘 다 /ㄱ/으로 시작되지만, 음성 수준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각각 실현된다. 그래서 '고고학'은 [ko:gohak]으로 발음된다. 한국어 화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고고학'을 [고코학], [고꼬학], [코꼬학] 비슷하게 발음하기 쉽다.

한국어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음운 규칙들이 많다. 예컨대 '독립문'이나 '불난리'를 글자 그대로 [독립문], [불난리]로 읽지 않고 왜 [동님문], [불랄리]로 읽어야 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복잡한 규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의 /ㅡ/나 /ㅢ/ 같은 독특한 모음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히는 일은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일본어와 같이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어 문장 성분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꽃이 핀다."와 "꽃은 핀다.", "아이가 운다."와 "아이는 운다."의 의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아예 조사를 생략하고 "꽃 핀다.", "아이 운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이 겪어야 할 끝도 없는 고달픔의 시작일 뿐이다. 가까스로 통사 구조를 익히고 나면, ㉡한국인들도 더러 헷갈려 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국에서 살거나 아예 한국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모국어 집단별로 사용하는 탈규범적 한국어가 어느 수준의 실용성을 획득한다면, 한국에도 일종의 혼성어인 ㉢피진 비슷한 언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권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2. <보기>는 ㉡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경어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3학년도 사관 1차 15번]

< 보 기 >

ㄱ. 에 린 : "여보, 아버님이 지금 좀 오시랍니다."
ㄴ. 아브디 :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형,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다섯 분입니다."
ㄷ. 교 코 : "할머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ㄹ. 제이슨 : "나의 사장님께서는 마음이 무척 넓으십니다."
ㅁ. 펑샨샨 : "교수님께서는 자동차가 계십니까?"

① ㄱ : 높여야 할 대상이 아버지이므로, 에린은 "아버님께서 지금 좀 오라십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② ㄴ : 자신을 포함한 자기 가족의 수를 말하고 있으므로, 아브디는 "모두 다섯 명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③ ㄷ : 할머니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므로, 교코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④ ㄹ : '나'와 '-시-'는 경어법상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제이슨은 '-시-'를 빼고 "마음이 무척 넓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⑤ ㅁ : 교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수님을 높여야 하므로, 펑샨샨은 "자동차가 있으십니까?"라고 말해야 합니다.

4) [음운] 1번과 중복 지문

23.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학년도 사관 1차 A형 13번]

< 보 기 >

ㄱ.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ㄴ. 아주 큰 서점이 생겼다.
ㄷ.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ㄹ.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① ㄱ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② ㄱ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군.
③ ㄴ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④ ㄷ의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겠군.
⑤ ㄹ의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줄 수 있겠군.

2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학년도 사관 1차 B형 14번]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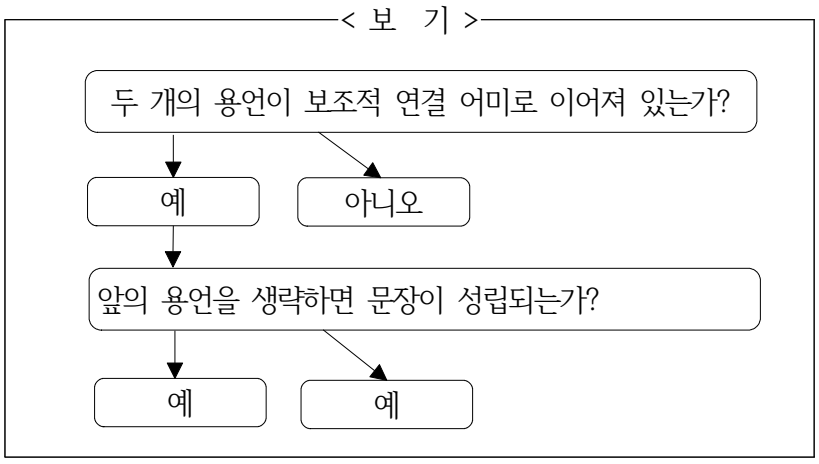
우리말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①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②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③ 창묵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④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⑤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25. <보기 1>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2>의 ⓐ~ⓓ 중에서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A형 12번]

< 보 기 >



< 보 기 >

-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찢어 버려라.
- 나도 책을 많이 ⓑ읽고 싶다.
-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 그것만 좀 더 ⓓ먹어 보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A형 13번]

< 보 기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보 기 >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① ㉠: 앞의 주어를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는 인용절이다.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27. <보기>의 ㄱ~ㅁ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ㅁ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B형 12번]

< 보 기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ㅁ.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구분	의미 조건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ㄱ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①
ㄴ	그녀의 손이 아름다움.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②
ㄷ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③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④
ㅁ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⑤

2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학년도 사관 1차 A형 13번]

< 보 기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2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B형 12번]

< 보 기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차례입니다. '역마살' 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둠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네, 할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셔요.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뵈다'를 활용하여 '뵐'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3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ㄱ, 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7학년도 사관 1차 13번]

< 보 기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하고, 안긴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안은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것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보 기 >

ㄱ. 그는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ㄴ. 너희가 내일 점심에 먹는 삼계탕이 그야말로 보양식이다.

①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를 꾸미고 있군.
②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를 꾸미고 있군.
③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군.
④ ㄱ의 안긴문장에는 ㄴ의 안긴문장에서와 달리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군.
⑤ ㄱ의 안긴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ㄴ의 안긴문장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31.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18학년도 사관 1차 11번]

< 보 기 >

[학습 자료]

•절대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시제.
•상대 시제: 주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학습 과제]

ㄱ~ㄹ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가 ㉠의 밑줄 친 부분의 상대 시제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학교 숙제를 마친 그녀가 음악을 듣는다.

ㄱ.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수박을 우리가 다 먹었다.
ㄴ. 퇴근한 후에 오빠는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왔다.
ㄷ. 우리 반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을 무척 기다렸다.
ㄹ. 나는 그 친구에게서 그가 입원한 사실을 방금 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나' 형 감탄문과 '어라' 형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은 감탄문의 일반적 유형인데,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군, -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어라' 형 감탄문은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 어미인 '-아라/-어라/-여라'가 붙어서 실현된다. 감탄문은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의 높임 표현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에는 '해라체'의 '-(는)구나', 하게체의 '-(는)구먼', 하오체의 '-(는)구려' 등이 쓰이고, 비격식체에는 '해체'의 '-군, -네' 등이 쓰인다.

한편 중세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감탄형 종결 어미인 '-ㄴ뎌, -ㄹ쎠/-ㄹ셔' 등이 붙어서 실현되고, 후자는 선어말 어미인 '-도-/-돗-/-옷-'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도-'는 '-다' 앞에서 쓰인 '-돗-'의 이형태이다.

ㄱ. 됴흘쎠 오ᄂᆞᆳ날 果報ㅣ여
(좋구나 오늘날의 과보여) [월석 23:82]
ㄴ.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ᄒᆞᆯ씨 보비를 아니 앗기놋다
(이 남자가 정성이 지극하므로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월석 1:11]

ㄱ의 '됴흘쎠'는 '둏다'의 어간에 감탄형 어미 '-ㄹ쎠'가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고, ㄴ의 '앗기놋다'에서는 '-옷-'이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감탄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학년도 사관 1차 11번]

① '앗, 차가워라!'는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된 감탄문이다.
② '철수가 게를 잡는구나!'는 해라체에, '철수가 게를 잡는구려!'는 하오체에 해당한다.
③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는 해체로 쓰이는 감탄형 어미 '-네'가 붙어서 실현된 감탄문이다.
④ '아, 시원해라!'는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감탄문이 실현된 문장이다.
⑤ '호박죽이 너무 뜨겁구나!'와 같은 '구나' 형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용언의 품사는 '어라' 형 감탄문에 비해 제한적이다.

5) [국어사] 49번과 중복 지문

3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관형사절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9학년도 사관 1차 13번]

< 보 기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계절과 그렇지 않은 보문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절에서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것은 그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피수식어인 체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 긴 관형사절과 종결 어미가 없는 짧은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은 서로 바꿔도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와 바꾸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절은 전체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 "네가 되려는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 주어가 생략된 짧은 관형사절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② "오늘에서야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관계절로 이 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너는 개울에서 헤엄을 쳐 본 경험이 있니?"
⇒ 종결 어미가 없는 보문절로 긴 관형사절로 바꿔도 자연스럽다.

④ "나는 그때 네가 그렸다는 그림을 보았다."
⇒ 목적어가 생략된 긴 관형절사로 이 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⑤ "그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 종결 어미가 있는 보문절로 짧은 관형사절로 바꿔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34. <보기 1>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9학년도 사관 1차 15번]

< 보기 1 >

절대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비교하여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발화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한편 상대 시제는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를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와 비교하여, 안긴문장이나 종속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안은문장이나 주절의 사건시가 앞서면 미래로 나눈다.

< 보기 2 >

ㄱ.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는다.
ㄴ. 내일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르겠다.

① ㄱ의 '들으며'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 ㄴ에서 '가는'의 절대 시제는 '들르겠다'의 절대 시제와 일치한다.
③ ㄱ의 '들으며'의 상대 시제와 ㄴ의 '가는'의 절대 시제는 모두 현재이다.
④ ㄱ의 '먹는다'의 '-는-'과 ㄴ의 '가는'의 '-는'은 모두 절대 시제가 현재임을 나타낸다.
⑤ ㄱ의 '들으며'의 '-으며'는 '들으며'의 사건시가 '먹는다'의 사건시보다 앞섬을 나타낸다.

35. <보기>의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학년도 사관 1차 12번]

< 보 기 >

㉠ 그녀는 여름 방학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다.
㉡ 해군 부대는 함정이 한참 부족했으나 용맹한 자세로 전투에 나섰다.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② ㉠은 명사절을 안고 있지만 ㉡은 인용절을 안고 있다.
③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⑤ ㉠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담 화]

[36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는 어떤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직시(直示)라고 한다. 직시는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담화 직시, 장소 직시, 시간 직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담화 직시란 담화의 어떤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회장은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담화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이 담화의 한 부분인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이다. 이 경우 '그것'이 바로 담화 직시 표현이다.

담화 직시는 시간 직시나 장소 직시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담화가 일련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직시와 마찬가지로 담화 직시에서도 '이, 그, 저'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ㄱ) **위**에서 우리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ㄴ) **다음** 장에서는 발화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ㄷ)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다른 말을 하지는 않겠지?

담화 직시는 (ㄱ)처럼 그것이 지시하는 담화의 부분이 직시 표현에 선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고, (ㄴ)처럼 후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다. 또한 (ㄷ)처럼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이나 후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담화 직시에 '이, 그, 저'가 사용될 경우, (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나 '저'를 사용한다. 이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담화 직시는 '조응(照應)'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담화 직시가 담화 속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데 반하여, 조응은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인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ㄹ) A : 차림표에 설롱탕이라고 써 놓았더군.
B : 그래? **그것**은 잘못 쓴 것이지?
(ㅁ) 영이는 크고 예쁜 꽃병을 깨뜨렸다. **그것**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ㄹ)의 '그것'은 음식 설렁탕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림표에 써 놓은 '설롱탕'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기 때문에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ㅁ)의 '그것'은 '크고 예쁜 꽃병'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의 지시체인 '꽃병'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조응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응 표현은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 공지시적(公指示的) 관계에 있다고 한다.

담화 직시와 마찬가지로 조응 표현은, 지시 대상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에 올 수도 있다. (ㅁ)과 같이 선행사가 앞에 오고 그것을 지시하는 조응 표현이 뒤에 오는 조응을 전방 조응이라 하고, 뒤에서 언급할 대상을 앞에서 미리 지시하는 조응 표현을 후방 조응이라 한다.

36.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2학년도 사관 1차 22번]

< 보 기 >

(가) 여기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어떠니?
(나)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라) 골목길에서 그것을 밟을 뻔했어. 길 한 가운데에 소똥이 수북이 있는 거야.

① (가)의 '여기'와 '거기'는 담화의 일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화 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아래'는 장소 직시에 사용되는 표현이 담화 직시의 표현으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다)에서 '그것'은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고, 후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다.
④ (다)에서 '그것' 대신에 '이것'을 쓰면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 더 가깝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⑤ (라)의 '그것'은 '길 한 가운데에 수북이 있는 소똥'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37. Ⓐ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3점]

[12학년도 사관 1차 23번]

① 할머니께서 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야.
②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그래서 관우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
③ 저것 좀 봐. 저 높은 곳에서 지상을 향해 송곳처럼 떨어지는 폭포수를.
④ 곧 반장 선거가 있어. 여기에 출마해 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⑤ 장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8.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A형 14번]

< 보 기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붙잡혔어요.
아버지 : 오늘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했어요.
아버지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어 문 규 범]

39. <보기>는 발음이 비슷하여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1학년도 사관 1차 4번]

< 보 기 >

바치다[1] :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바치다[2] : 주접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여 찾다.
받히다 : '받다'의 피동사 (*받다 :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받치다[1] :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받치다[2]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① 그는 설움에 받혀 울음을 터뜨렸다.(→받쳐)
② 그는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받혀)
③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받히고)
④ 이분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받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바쳐야)
⑤ 매일 그렇게 술을 받히더니 결국 간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바치더니)

40.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학년도 사관 1차 B형 12번]

< 보 기 >

선생님: 받침 뒤에 모음 'ㅏ, ㅕ,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늪 앞'은 [느밥]으로, '젖어미'는 [저더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음식이 맛없다. ……[마덥따]
② 헛웃음만 나왔다. ……[허두슴]
③ 겉에 먼지가 묻었다. ……[거테]
④ 밭 아래 논이 있다. …… [바다래]
⑤ 꽃을 선물 받았다. ……[꼬슬]

41. <보기 1>을 토대로 <보기 2>의 ㉠~㉤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학년도 사관 1차 B형 11번]

< 보 기 >

<'소리의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 요약>

구분	규정 내용	예시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함.	많다[만:타] 알다[알:다] 멀리[멀:리] 꼬다[꼬:다] 두어[두어]→둬[둬:] 기어[기어]→겨[겨:]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함.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밥:따]-밟히다[발피다]

< 보 기 >

- 철수는 영희와 ㉠눈먼 사랑에 빠져 있다.
-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재치가 ㉡많고 슬기롭다.
- 예전에는 새끼로 줄을 ㉢꽈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 바느질을 하는데 ㉣감긴 실을 풀지 못해 애를 먹었다.
- 몰랐던 것을 스스로 ㉤알아 가는 데에 공부의 참 재미가 있다.

① ㉠의 '먼'은 둘째 음절에 있으므로 [먼]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② ㉡의 '많-'은 첫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으로 길게 발음되겠군.
③ ㉢의 '꽈'는 어간인 '꼬-'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꽈]로 짧게 발음되겠군.
④ ㉣의 '감-'은 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감]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⑤ ㉤의 '알아'는 어간 '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라]와 같이 어간 부분이 짧게 발음되겠군.

42. <보기>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관한 국어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5학년도 사관 1차 B형 13번]

< 보 기 >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5절은 두음 법칙과 관련해 국어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의 첫 음절에 있는 어두음에 적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탐구 자료]

구분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한자의 본래 음
㉠	요소(尿素), 익명(匿名) 당뇨(糖尿), 은닉(隱匿)	뇨소(尿素), 익명(尿素) 당뇨(糖尿), 은익(隱匿)	尿: 뇨 / 匿: 닉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역이용(逆利用)	신녀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역리용(逆利用)	女: 녀 / 念: 념 利: 리
㉢	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 보급률(普及率), 시청률(視聽率)	규률(規律), 백분률(百分率), 보급률(普及率), 시청율(視聽率)	律: 률 / 率: 률
㉣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力: 력 / 旅: 려
㉤	낙원(樂園), 뇌성(雷聲), 누각(樓閣)	락원(樂園), 뇌성(雷聲), 루각(樓閣)	樂: 락 / 雷: 뢰 樓: 루

① ㉠ → 모음 'ㅛ, ㅣ' 앞에 'ㄴ'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ㄴ'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데,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② ㉡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뒤에 붙어 있는 한자어는 그 첫소리가 'ㄴ'이나 'ㄹ'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ㄴ'이나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③ ㉢ → 한자음 '률'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음 뒤에 위치하는 경우와 달리 '률'을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④ ㉣ →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뒷말의 첫소리가 'ㄹ'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⑤ ㉤ → 모음 'ㅏ, ㅚ, ㅜ' 앞에 'ㄹ'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 대신에 'ㄴ'으로 적어야 하는군.

43. <보기>의 한글 맞춤법에 관한 자료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학년도 사관 1차 B형 11번]

< 보 기 >

제18항 용언들의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예)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예) 낫다 : 나아, 나으니, 나았다

⋮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예)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예) 가르다 : 갈라, 갈랐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예) 먹이, 같이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① '물을 여기에 부어라'의 '부어라'는 어간 '붓-'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② '그만 좀 간질여라'의 '간질여라'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③ '십 리는 좋이 되겠다'의 '좋이'는 어간 '좋-'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④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의 '게으름'은 어간 '게으르-'에 접미사 '-ㅁ'이 결합해 명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⑤ '앞으로 자주 보자'의 '자주'는 어간 '잦-'에 접미사 '-우'가 결합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4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학년도 사관 1차 B형 13번]

< 보 기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탈락', 없던 소리가 끼어드는 ㉣'첨가' 가 있다.

< 보 기 >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ㄳ, ㄵ, ㄽ'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받침 'ㅎ(ㄶ, 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① 제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빛대[빋때]'를 들 수 있다.
② 제11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닭[닥]'을 들 수 있다.
③ 제12항의 '1'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않던[안턴]'을 들 수 있다.
④ 제12항의 '4'는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낳은[나은]'을 들 수 있다.
⑤ 제2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한여름[한녀름]'을 들 수 있다.

45.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학년도 사관 1차 14번]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선생님 : 표준 발음법 제17항은 구개음화에 대한 발음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조사나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일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의 일부이거나 실질 형태소의 일부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ㄱ.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 맏이는 윗머리와 뒷머리 숱을 많이 쳤다.
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던 그는 흙에 묻힌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ㄷ. 그는 밭이랑 논이랑 땅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① ㄱ의 '맏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겠군.
② ㄱ의 '숱을'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수츨]로 발음해야겠군.
③ ㄴ의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겠군.
④ ㄴ의 '묻힌'은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무친]으로 발음해야겠군.
⑤ ㄷ의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6)]

언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심리가 주된 동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말 중의 하나가 '줄임말'이다. '줄임말'은 본말보다 음절수가 하나 이상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 형식으로,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몇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ㄱ. 가지다 → 갖다, 견디어 → 견뎌, 아이 → 애
ㄴ. 노동조합 → 노조, 몰래 카메라 → 몰카, 한국은행 → 한은
ㄷ. 서양복 → 양복, 자외광선 → 자외선, 거스름돈 → 거스름
ㄹ. 태권도 + 에어로빅 → 태권로빅, 자동차 + 가계부 → 차계부

ㄱ은 음운론적인 과정을 통해 음절수가 감소된 경우이다.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준말'의 예들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음운론적 차원에서 음절이 줄어든 준말은 음운이 '탈락'되거나 '축약'되면서 형성된다. 전자는 모음 중 한 모음이 생략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마음 → 맘', '디디고 → 딛고'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두 모음이 결합하면서 두 모음과는 다른 제3의 모음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나이 → 사내', '조심스러이 → 조심스레'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ㄴ, ㄷ, ㄹ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이 음운론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이다. ㄴ은 단어와 단어가 연쇄되어 있을 때, 각각의 첫 음절만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두자어(頭字語)'라고 한다. 두자어는 본말이 구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고유 명칭처럼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ㄷ은 복합어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생략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절단어(切斷語)'라고 한다. 절단어는 보통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지지만 간혹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ㄹ은 둘 이상의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줄임말을 '혼성어(混成語)'라고 한다.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두 단어가 갖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6. 다음은 ㉠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준말'에 적용된 항목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학년도 사관 1차 13번]

(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음.
(나)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다)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이-'가 앞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하고 뒤 음절에 붙어 줄여지기도 함.
(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음.
(마)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음.

① '저리로'는 (가)를 적용하여 '절로'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② '보이다'는 (나)를 적용하여 '뵈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③ '누이어'는 (다)를 적용하여 '누여'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④ '점잖지 않다'는 (라)를 적용하여 '점잖찮다'로 줄여 쓸 수 있겠군.
⑤ '정결하다'는 (마)를 적용하여 '정결타'로 줄여 쓸 수 있겠군.

6) [단어] 17번과 중복 지문

[국 어 사]

47.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학년도 사관 1차 15번]

< 보 기 >

(가) [중세 국어 자료]

:시내 횟:돈 ·ᄃᆡ·솚 ᄇᆞᄅᆞ·미 기·리 :부ᄂᆞ·니 프·른 쥐 :녯 다샛·서리·예·숨ᄂᆞ·다

:아디 :몯ᄒᆞ·리로·다 어·느 :님긊 宮殿(궁전)·고 기·튼 지·슨 거·시 노·푼 石壁(석벽)ㅅ 아·래로·다

·어득ᄒᆞᆫ 房(방)·앤 귓거·싀 ·브리 ᄑᆞ·ᄅᆞ·고 믈·어딘 길·헨 슬픈 ·므리 흐르·놋·다

여·러 가·짓 소·리 眞實(진실)ㅅ 뎌·와 ·피릿 소·리 ·ᄀᆞᆮ도소·니 ᄀᆞ·ᅀᆞᆷ ·비치 正(정)·히ᄀᆞᆺᄀᆞᆺ·ᄒᆞ도·다

- 두보, 「옥화궁(玉華宮)」『초간본 두시언해』(1481년) -

(나) [현대 국어 자료]

시내 휘도는 데 솔 바람이 길이 부나니 푸른 쥐 옛 기와 사이에 숨는다.

알지 못하리로다, 어느 임금의 궁전인가? 남은 지은 것이 높은 석벽의 아래로다.

어둑한 방에는 귀신의 불이 파랗고 무너진 길에는 슬픈 물이 흐르는구나.

여러 가지 소리 진실로 저와 피리의 소리 같더니 가을 빛이 정히 깨끗하도다.

① (나)의 '옛'을 고려할 때, (가)의 '녯'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② (나)의 '임금의'를 고려할 때, (가)의 '님긊' 에 서 'ㅅ'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③ (나)의 '불이'를 고려할 때, (가)의 '브리'에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났군.

④ (나)의 '-는구나'를 고려할 때, (가)의 '-놋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군.

⑤ (나)의 '빛이'를 고려할 때, (가)의 '비치'는 이어적기 표기를 했군.

48. <보기>의 (A), (B)에 들어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18학년도 사관 1차 15번]

< 보 기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

후속하는어미 / 결합하는 어간	안울림소리로 시작	울림소리로 시작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ㅁ, ㄹ'로 끝남.	-ᄉᆞᆸ-	-ᄉᆞᄫᆞᆸ-
'ㄱ, ㅂ, ㅅ, ㆆ'으로 끝남	-ᄉᆞᆸ-	-ᄉᆞᄫᆞᆸ-
'ㄷ, ㅈ, ㅊ'으로 끝남.	-ᄌᆞᆸ-	-ᄌᆞᄫᆞᆸ-

(가) 無量壽佛 □ 사ᄅᆞᄆᆞᆫ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을) 뵌 사람은

[→ 보- + (A) + -ᄋᆞᆫ]

(나) 無量壽佛ᄭᅴ 나 正法 □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께 나 정법(을) 듣고자

[→ 듣- + (B) + -고져]

	(A)	(B)		(A)	(B)
①	-ᄉᆞᄫᆞᆸ-	-ᄌᆞᄫᆞᆸ-	②	-ᄉᆞᄫᆞᆸ-	-ᄌᆞᆸ-
③	-ᄉᆞᄫᆞᆸ-	-ᄉᆞᆸ-	④	-ᄉᆞᆸ-	-ᄌᆞᆸ-
⑤	-ᄉᆞᆸ-	-ᄉᆞᆸ-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나' 형 감탄문과 '어라' 형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은 감탄문의 일반적 유형인데,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군, -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어라' 형 감탄문은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 어미인 '-아라/-어라/-여라'가 붙어서 실현된다. 감탄문은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의 높임 표현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에는 '해라체'의 '-(는)구나', 하게체의 '-(는)구먼', 하오체의 '-(는)구려' 등이 쓰이고, 비격식체에는 '해체'의 '-군, -네' 등이 쓰인다.

7) [문장] 32번과 중복 지문

한편 중세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감탄형 종결 어미인 '-ㄴ뎌, -ㄹ쎠/-ㄹ셔' 등이 붙어서 실현되고, 후자는 선어말 어미인 '-도-/-돗-/-옷-'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도-'는 '-다' 앞에서 쓰인 '-돗-'의 이형태이다.

ㄱ. 됴ᄒᆞᆯ쎠 오ᄂᆞᆳ날 果報ㅣ여
(좋구나 오늘날의 과보여) [월석 23:82]
ㄴ.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ᄒᆞᆯ씨 보비를 아니 앗기놋다
(이 남자가 정성이 지극하므로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월석 1:11]

ㄱ의 '됴ᄒᆞᆯ쎠'는 '둏다'의 어간에 감탄형 어미 '-ㄹ쎠'가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고, ㄴ의 '앗기놋다'에서는 '-옷-'이 붙어서 감탄이 실현된 것이다.

49. <보기 2>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 2>의 ㄱ~ㄹ 중, 옳은 설명만을 골라 묶은 것은?

[19학년도 사관 1차 12번]

< 보기 1 >

ⓐ 義ᄂᆞᆫ 그 큰뎌 (의는 그것이 크구나) [내훈 3:54]
ⓑ 摩耶ㅣ 如來ᄅᆞᆯ 나 ᄉᆞᄫᆞᆸ 실 쎠 (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석상 11:24]
ⓒ 새 그ᄅᆞᆯ 어 제 브텨 보내돗더라 (새 글을 어제 부쳐 보내었더구나) [두언 23:29]
ⓓ 내 아ᄃᆞ 리 어딜쎠 (내 아들이 어질구나) [월석 2:7]
ⓔ ᄠᅳ 디 기프시도다 (뜻이 깊으시구나) [금삼 5:21]

< 보기 2 >

ㄱ. ⓐ는 감탄형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고, ⓑ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다.
ㄴ. ⓑ와 ⓓ를 통해 동사, 형용사가 감탄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와 ⓔ를 통해 감탄형 종결 어미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ㄹ. ⓒ와 ⓔ를 비교해 보면 감탄문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

의미 자질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을 말한다. 의미 자질을 표시할 때는 여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또는 [-기준]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예컨대 '소녀', '소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소녀 : [-남성], [-어른], [+인간]
소년 : [+남성], [-어른], [+인간]
할머니 : [-남성], [+어른], [+인간]
할아버지 : [+남성], [+어른], [+인간]

그런데 위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 즉 [+인간]을 표시하고 나면 [+포유류], [+동물] 등의 의미 자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 자질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유류], [+동물] 등을 [+인간]의 잉여자질이라 한다.

단어의 의미 자질은 상위어일수록 그 수가 적다. 예컨대 '사람', '남자', '소년'의 의미 자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사람 : [+인간]
남자 : [+인간], [+남성]
소년 : [+인간], [+남성], [-어른]

한편, 단어의 의미는 변한다. 이는 곧 의미 자질이 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컨대 15~17세기에 나타나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면 '마노라'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여자만을 가리키게 된다. 19세기에는 '마노라' 외에도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 '마노라'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마누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마누라'라는 단어만 남았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부를 때 외에 '중년이 넘은 여자'를 낮춰 부를 때도 사용된다.

5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학년도 사관 1차 15번]

① 15세기의 '마노라'와 달리 18세기의 '마노라'는 [+여자]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② 15세기의 '마노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③ 18세기의 '마노라'와 19세기의 '마누라' 모두 [+여자]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④ 19세기부터 [+가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는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⑤ 19세기의 '마누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아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8) [단어] 20번과 중복 지문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 영역 문법 문제 모음(11학년도~20학년도)

국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①	11	⑤	21	③	31	②	41	③
2	①	12	⑤	22	④	32	⑤	42	③
3	②	13	①	23	④	33	④	43	②
4	⑤	14	②	24	②	34	②	44	②
5	③	15	①	25	⑤	35	⑤	45	②
6	④	16	③	26	③	36	⑤	46	④
7	④	17	②	27	③	37	⑤	47	③
8	①	18	③	28	⑤	38	⑤	48	②
9	①	19	③	29	②	39	③	49	⑤
10	①	20	④	30	③	40	⑤	50	⑤